



일본 건강나이연동형 의료보험 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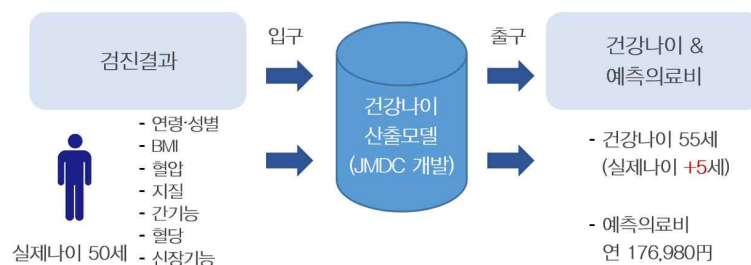
김유미 연구원

- 일본 보험회사는 보험나이가 아닌 건강나이를 반영한 리스크세분형 의료보험상품을 출시함. 이 상품은 건강상태 개선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해주어 계약자에게 건강관리 유인을 제공하고 나아가 국가차원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상품판매관행 개선 및 건강나이 모형개발을 통해 건강나이연동형 의료보험상품 개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.

- 일본 노리츠강기(鋼機)는 건강나이소액단기보험주식회사(健康年齢少額短期保険株式会社)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올해 6월 업계 최초로 『건강나이연동형의료보험』 상품을 출시하였음.

- 건강나이란 건강과 관련된 생활습관, 가족력, 환경요인 등을 기초로 개인의 사망위험도를 평가한 나이를 말함.
- 보험회사는 일본의료데이터센터¹⁾가 보유한 160만 건 이상의 건강진단결과 및 의료비 청구서 등에서 12개 항목(BMI, 혈압 등)의 건강검진데이터를 추출하여 건강나이 산출모형을 개발함.
- 건강나이연동형 의료보험은 계약자의 실제나이와 건강나이를 비교하여 연간의료비를 예측하고 이를 보험료에 반영함.

〈그림 1〉 『건강나이연동형의료보험』 상품구조



주: 1년 만기, 보험금액 80만 원인 소액단기보험으로 5대 질병(암, 뇌졸중, 심근경색, 고혈압, 당뇨병) 치료비를 보장함.
 자료: 健康年齢少額短期保険株式会社(2016. 6. 16), “日本初”「健康年齢®」で加入できる『健康年齢連動型医療保険』.

1) 노리츠강기의 자회사로 의료관련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임(Japan Medical Data Center, JMDC).

■ 네오퍼스트생명(ネオファースト生命)도 건강나이를 반영한 상품을 12월 1일에 출시할 예정이며, 이 상품은 가입당시에는 실제나이를 하되 3년 후 갱신시점에는 건강나이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함.²⁾

- 네오퍼스트생명은 일본의료데이터센터의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미즈호제일파이낸셜그룹과의 기술협약을 통해 건강나이 산출모델을 개발함.
- 이 상품은 건강나이와 실제나이 차이를 5세 이하로 제한하였으며, 갱신시점에 계약자가 건강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제나이에 5세를 추가 적용하여 갱신 보험료를 산출함.
- 3년 후 갱신시점에 계약자의 건강나이가 가입당시보다 높아지지 않은 경우, 월납입보험료는 전 연령대에서 약 300엔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남.

■ 고연령·유병자는 건강상태가 양호하여도 나이와 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으나 보험 나이가 아닌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위험집단을 분류한 보험상품의 경우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가입이 가능해질 수도 있음.

-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위험집단을 분류할 경우 고연령으로 갈수록 건강상태에 따른 분산이 커질 수 있으나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보다 동질적인 위험집단에서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질 수 있음.
-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건강나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,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흡연 여부, 건강관련 수치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음.
- 최근에는 웨어러블 기기 등 IT기술의 발달로 건강관련 데이터 집적이 용이해졌으며, 이를 활용하여 정교한 건강나이 산출이 가능해짐.

■ 건강나이연동형 보험상품은 계약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어 건강관리 유인이 제고되고 국가차원의 의료비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.

- 일반적인 의료보험상품은 연령별 사망률 및 질병 발생률에 기초하여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건강나이연동형 보험상품은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짐.
- 계약자는 건강상태 개선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고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수명³⁾을 연장시

2) 네오퍼스트생명(2016. 9. 20)., “業界初！「健康年齢®」による全く新しい価値観の生活習慣病に備える保険を開発”.

3) 건강수명이란 전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을 의미하며, 2015년 기준 일본의 기대수명은 83.7세, 건강수명 74.9세,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82.3세, 건강수명은 73.2세임(WHO, World Health Statistics).

킬 수 있을 것이며, 나아가 국가차원의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임.

- 보험회사는 건강관련 리스크 세분화를 통해 위험률차익 관리가 용이해질 것이며, 고객맞춤형 보험 상품의 제공이 가능해질 것임.

■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일본의 건강나이연동형 의료보험과 같이 세분화된 리스크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, 이를 위해서는 상품판매관행 개선, 건강나이 모형개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.

- 일본 보험회사는 소액단기보험을 활용한 리스크 세분형 보험상품을 다양하게 공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패키지형태로 판매하는 관행⁴⁾이 있어 개인의 차이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.
- 건강나이를 반영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의료 데이터 집적 및 건강나이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, 일본 보험회사와 같이 전문기관과의 협약도 고려해야 할 것임. [kiri](#)

4) 정성희(2016, 6. 16), “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”, 정책세미나 발표자료.